

미르호 헌터스

미르호 헌터스

우주는 좌표로 말한다

처음부터 우주는 침묵하지 않았다. 다만 인류가 그 말을 읽지 못했을 뿐이다.

별들은 오래전부터 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행성들은 궤도로 노래했으며, 시간은 보이지 않는 강처럼 모든 문명 사이를 흘러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라 불렀고, 역사라 불렀고, 우연이라 불렀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만남에는 좌표가 있었다.

시간의 좌표. 공간의 좌표. 차원의 좌표.

그 세 개의 축이 정확히 맞는 순간,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차원에 있던 존재들이 하나의 문 앞에 설 수 있었다.

미르호

지상에 내려온 우주정거장.
그리고 인류가 아직 열어보지 못한
첫 번째 시공차 문.

시공차 좌표계.

오래전 잊힌 우주문명의 언어이자,
길을 잃은 문명들을 다시 연결하는 우주 내비게이션.
인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시대가 전부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시대는 동시에
흐르고 있었고, 모든 장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모든 차원은 하나의 거대한 창조 지도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지도의 한 조각이 대한민국 여주 야산에 잠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낡은 금속 덩어리라 생각했다.
누군가는 폐기된 구조물이라 했고,
누군가는 오래된 전신물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었다.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거대한 군대도 아니었고, 비밀 조직도 아니었고,
우주를 정복하려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잃어버린 좌표를 찾고, 흩어진 문명을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가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사람들은 훗날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

미르호 헌터스

**여주 야산의
미스터리**

모든 여정의 시작

미르호의 비밀

잠들어 있던 우주정거장

**시공차 좌표계
(TSD)**

시간·공간·차원을 잇는
우주의 언어

**고려·고조선
미래 서울**

역사와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

우주숲과 초우주

차원을 넘어선
무한한 세계

**문명은 연결될 때
가장 아름답다**

모든 문명이 하나로
연결되는 미래

현재 프롤로그 및 본편 연재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미르호 헌터스 시즌1: 시공차 좌표계의 비밀》

프롤로그

우주는 좌표로 말한다

처음부터 우주는 침묵하지 않았다. 다만 인류가 그 말을 읽지 못했을 뿐이다.

별들은 오래전부터 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행성들은 궤도로 노래했으며, 시간은 보이지 않는 강처럼 모든 문명 사이를 흘러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라 불렀고, 역사라 불렀고, 우연이라 불렀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만남에는 좌표가 있었다.

시간의 좌표. 공간의 좌표. 차원의 좌표.

그 세 개의 축이 정확히 맞는 순간,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차원에 있던 존재들이 하나의 문 앞에 설 수 있었다.

시공차 좌표계.

오래전 잊힌 우주문명의 언어이자, 길을 잃은 문명들을 다시 연결하는 우주 내비게이션.

인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시대가 전부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시대는 동시에 흐르고 있었고, 모든 장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모든 차원은 하나의 거대한 창조 지도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지도의 한 조각이 대한민국 여주 야산에 잠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낡은 금속 덩어리라 생각했다. 누군가는 폐기된 구조물이라 했고, 누군가는 오래된 전시물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었다.

미르호.

지상에 내려온 우주정거장. 그리고 인류가 아직 열어보지 못한 첫 번째 시공차 문.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거대한 군대도 아니었고, 비밀 조직도 아니었고, 우주를 정복하려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잃어버린 좌표를 찾고, 흩어진 문명을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가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사람들은 훗날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

미르호 헌터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어느 날, 여주 야산에서 들려온 이상한 신호로부터 시작되었다.

제1화

여주 야산의 이상한 신호

박도윤은 처음 그 메시지를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새벽 5시 17분. 휴대폰 화면 위로 낫선 알림 하나가 떠올랐다.

T -1443 / S 37.298 / D 5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여주에서 첫 번째 문이 열린다.”

도윤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창밖은 아직 푸른 새벽빛에 잠겨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새벽 안개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세상은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의 고요한 숨을 쉬고 있었다.

“뭐야, 이거.”

그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발신자 없음. 링크 없음. 첨부파일 없음. 단지 이상한 숫자와 한 문장뿐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스팸으로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도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된 지도, 사라진 기록, 폐쇄된 과학 시설, 설명되지 않는 현장들을 추적하는 독립 탐사 콘텐츠 제작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반쯤 농담으로 ‘현실 헌터’라고 불렀다.

하지만 도윤은 자신이 헌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왜 어떤 장소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가. 왜 어떤 물건은 공식 기록과 맞지 않는가. 왜 역사 속 어떤 사건들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춘 것처럼 빈칸으로 남아 있는가.

그 빈칸들이 도윤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오늘, 그 빈칸 하나가 스스로 말을 걸어왔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고 숫자를 검색했다. S 37.298. 위도처럼 보였다. 여주 일대와 맞아떨어졌다. 그는 지도 프로그램을 켜고 좌표를 하나씩 대입했다. 정확한 위치는 산 중턱이었다. 도로에서 떨어진 야산. 주변에는 민가도 드물고, 일반 등산객이 일부러 찾아갈 만한 곳도 아니었다.

그는 다시 첫 번째 숫자를 보았다.

T -1443.

“시간?”

도윤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1443년. 조선 세종 25년. 훈민정음 창제 직전의 시기. 별자리 관측과 천문기록이 활발하던 시대.

그다음 숫자.

D 5.

그건 알 수 없었다. 단순한 코드일 수도 있었다. 차원, 등급, 장치 번호, 혹은 누군가의 장난.

하지만 도윤의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장난이라고 보기에 는 숫자들이 너무 정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여주에서 첫 번째 문이 열린다.

문.

그 단어가 도윤의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다.

그는 곧바로 연락처 하나를 눌렀다.

“서하야. 일어났어?”

상대는 세 번의 신호음 뒤에 전화를 받았다.

“새벽 다섯 시에 전화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야. 사고를 쳤거나, 엄청난 걸 발견했거나.”

“둘 다일 수도 있어.”

“말해봐.”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상대의 이름은 한서하. 고고천문학을 전공한 연구자이자, 도윤이 가장 신뢰하는 해석자였다. 서하는 오래된 천문도와 역사 기록, 고대 좌표 체계를 연결하는 데 탁월했다.

몇 초 뒤, 서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이거... 누가 보냈어?”

“발신자 없음.”

“장난이면 꽤 수준 높은 장난이야. T-1443은 그냥 숫자가 아니야. 세종대 천문 프로젝트와 맞물려. 그리고 S 좌표는 여주 쪽이 맞고.”

“D 5는?”

“모르겠어.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

“왜?”

서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조선 초기 천문 기록 중에 ‘다섯 번째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 있어. 학계에서는 상징적 표현으로 봐. 그런데 이 메시지의 D 5와 너무 닮았어.”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다.

“나 여주 간다.”

“혼자 가지 마.”

“그래서 전화했잖아.”

“장비 챙겨. 드론, 열화상 카메라, 지형 스캐너. 그리고 가능하면 금속 탐지기도.”

“그 정도야?”

서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윤아. 이건 그냥 폐건물 찾는 일이 아닐 수 있어.”

그 말에 도윤은 웃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장이 뛰어서였다. 오래전부터 그는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다. 세상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빈칸. 누군가 일부러 덮어둔 것 같은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

세 시간 뒤, 도윤과 서하는 여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다.

고속도로 위로 아침 햇살이 펼쳐졌다. 서울의 회색빛은 조금씩 사라지고, 창밖에는 강과 들판, 낮은 산들이 이어졌다. 서하는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켜고 관련 기록을 찾고 있었다.

“여주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야.”

“세종대왕릉 때문?”

“그것도 있고. 더 깊게 보면 여주는 조선의 문자, 천문, 왕실 기록과 연결돼 있어. 한글, 별, 시간, 그리고 왕의 길. 이 네 가지가 겹치는 장소야.”

“갑자기 너무 거창한데.”

“거창해야 맞아. 좌표가 여주를 가리킨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도윤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다. 목적지까지 18분.. 그때 차량 스피커에서 짧은 잡음이 울렸다.

치직.

도윤은 라디오를 켜다. 그런데 잡음은 계속됐다.

치직. 치지직.

그리고 낮선 음성이 흘러나왔다.

“좌표 접근 확인.”

도윤과 서하가 동시에 굳었다.

차량 내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스피커에서는 더 이상 라디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낮고 맑은 음성이 이어졌다.

“시공차 동기화 준비 중.”

서하가 천천히 도운을 바라보았다.

“방금... 들었지?”

도운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장난일 수 없었다. 누군가 차량 시스템을 해킹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무엇을 위해?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깜박였다. 목적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좌표가 떠올랐다.

T -1443 / S 37.298 / D 5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미르호 코어 반응 3%.”

도운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미르호?”

서하가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그 미르?”

구소련 우주정거장 미르. 인류 우주개발사의 상징 중 하나. 하지만 도운이 알고 있는 미르는 하늘 위의 역사였다. 그런데 지금, 여주 야산의 좌표와 연결되고 있었다.

차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아스팔트는 곧 흙길로 바뀌었고, 주변의 나무들이 양옆을 감싸듯 높게 솟아 있었다. 아침 햇살은 잎사귀 사이로 흩어져 길 위에 황금빛 점들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차를 세우고 장비를 챙겼다.

드론이 하늘로 떠올랐다. 화면에는 산의 능선과 계곡,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숲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위, 나무, 잡초, 오래된 흙길.

그러나 드론이 북쪽 사면을 지날 때, 화면 한구석에서 이상한 반사가 나타났다.

금속이었다.

“잠깐. 확대해봐.”

서하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나무와 덩굴 사이, 흙에 반쯤 묻힌 거대한 곡면 구조물이 보였다. 자연물일 수 없었다. 녹슬고 낡았지만, 분명 인공 구조물이었다. 도운은 숨을 삼켰다.

“저기다.”

두 사람은 숲을 헤치고 올라갔다. 길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좌표에 가까워질수록 휴대폰 화면의 숫자는 또렷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금속 구조물 앞에 섰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곡면 패널이 땅속에 박혀 있었고, 표면에는 오래된 먼지와 흙, 덩굴이 엉켜 있었다. 그러나 가운데 부분만큼은 이상하게 깨끗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흙을 닦아냈다.

금속 표면 위에 희미한 글자가 드러났다.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러시아어처럼 보였다. 도윤은 손전등을 비췄다. 글자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MIP

서하가 낮게 말했다.

“미르...”

그 순간, 금속판 안쪽에서 푸른빛이 희미하게 살아났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섰다.

빛은 원형으로 퍼져나가며 표면 위에 새로운 문양을 만들었다. 그것은 지도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좌표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시공차 좌표계 1차 접속 완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헌터스 후보자 2명 확인.”

도윤은 서하를 바라보았다.

서하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금속판이 단순한 우주정거장의 잔해가 아니라는 것을. 여주 야산에서 시작된 이 신호가 조선의 별지도와 고려의 강화도, 미래 서울과 안드로메다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을.

도윤은 천천히 금속 표면에 손을 올렸다.

푸른빛이 그의 손바닥 아래에서 별처럼 번졌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오래된 우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잃은 문명을 찾아라.”

제1화 끝.

제2화

땅속에 잠든 금속

푸른빛은 살아 있는 것처럼 천천히 금속 표면 위를 흘러갔다.

도윤과 서하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빛은 원형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금속판 전체가 거대한 별자리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선들이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다.

마치 우주 전체를 축소해 놓은 지도 같았다.

“저거... 좌표야.”

서하가 낮게 중얼거렸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금속판 위를 흐르는 빛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나 문양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시공차 좌표계 동기화 진행 중

진행률 7%

그리고 그 아래.

좌표 해독 시작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좌표 해독?”

그 순간 금속판 중앙에서 하나의 빛점이 떠올랐다.

빛점은 천천히 움직이며 좌표 하나를 가리켰다.

T -1443

S 37.298

D 5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좌표가 생성되었다.

T -1259

S 37.707

D 5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좌표가 생겼어.”

“연결 좌표 같아.”

서하는 재빨리 태블릿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몇 초 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도윤아.”

“왜?”

“이 위치... 강화도야.”

“강화도?”

“정확히는 고려 궁성과 삼별초 유적 근처.”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강화도.

고려 왕조가 몽골 침략에 맞서 버티던 최후의 거점.

수많은 역사와 전설이 남아 있는 장소.

그 순간.

금속판 내부에서 낮은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우우웅—

땅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주변 숲속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빛은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허공 위로 거대한 입체 영상이 떠올랐다.

도운과 서하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별자리였다.

그러나 현재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니었다.

조선 시대의 하늘.

고려 시대의 하늘.

그리고 현대의 하늘.

수천 년의 시간이 한 장의 지도 위에 겹쳐져 있었다.

별들은 서로 선으로 연결되었다.

그 선들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결국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우주 규모의 지도.

문명 규모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중심에 세 개의 문자가 떠올랐다.

T

S

D

황금빛 글자가 숲 전체를 비추었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시공차 좌표계

문명 연결 시스템

서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문명 연결 시스템...”

도윤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동안 그들은 수많은 유적을 조사했다.

수많은 기록을 읽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어떤 역사책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연구 논문에도 없었다.

마치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명이 보내온 초대장 같았다.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떠올랐다.

제1좌표 확인

제2좌표 활성화

목적지 설정 완료

강화도

도윤은 메시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화도에 뭔가 있다는 뜻이야.”

“그것도 단순한 유물이 아닐 거야.”

“같은 종류의 좌표?”

“아마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금속판 중심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딸깍.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금속판 일부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마치 수백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금고가 열리는 것 같았다.
안쪽에는 둥근 원형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반투명한 결정체.
수정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인 광물은 아니었다.
그 안에서는 은하수 같은 빛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작은 우주를 가뒀 놓은 것 같았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조심해.”
서하가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결정체에 손을 올렸다.
순간.
세상이 사라졌다.
빛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공간에 서 있었다.
끝없는 우주.
수많은 별.
은하.
성운.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황금빛 선들.
그것들은 길이었다.
우주의 길.
문명의 길.
시간의 길.

수많은 좌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도윤은 그 광경에 압도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찾는 자여.”

낮고 웅장한 목소리였다.

“첫 번째 좌표를 확인했다.”

황금빛 좌표망이 더욱 밝게 빛났다.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라.”

“흩어진 시간을 연결하라.”

“그리고 길을 이어라.”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는 길을 만든 자들이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도윤은 다시 숲속으로 돌아왔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서하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도윤아!”

“괜찮아...”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결정체를 바라보았다.

결정체 안에서는 여전히 작은 은하가 흐르고 있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야.”

서하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적 탐사가 아니었다.

단순한 역사 연구도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인류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문명의 흔적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다음 목적지는 강화도였다.

숲 위로 저녁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2화 끝.

제3화

T -1443의 비밀

강화도로 돌아오는 길.

아니, 정확히는 강화도로 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길이었다.

도윤과 서하는 여주 야산을 내려오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은 여전히 평범한 숲처럼 보였다.

새들이 날고 있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거대한 빛을 뿜어내던 금속판도 다시 흙과 덩굴 속에 잠들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서하였다.

“도윤아.”

“응.”

“아까 그 목소리.”

“나도 들었어.”

“환청은 아니겠지?”

도윤은 잠시 웃었다.

“둘이 동시에 같은 환청을 듣기는 힘들지.”

“그렇겠지.”

서하는 태블릿을 열었다.

화면에는 계속 같은 숫자가 떠 있었다.

T -1443

S 37.298

D 5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좌표.

T -1259

S 37.707

D 5

서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원데?”

“T값.”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S는 공간.

D는 차원.

그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했다.

하지만 T.

시간 좌표.

그 숫자의 의미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443년.”

서하가 말했다.

“세종 25년.”

“훈민정음 창제 직전.”

“맞아.”

서하는 태블릿을 넘기며 자료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근데 이상해.”

“뭐가?”

“보통 역사 기록에 남는 건 결과야.”

“결과?”

“훈민정음이 창제됐다. 측우기가 만들어졌다.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다.”

“그렇지.”

“그런데 그 직전 기록은 거의 없어.”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이상했다.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왕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443년 무렵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했다.

마치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 빠져 있는 것처럼.

“혹시...”

도윤이 중얼거렸다.

“뭐?”

“우리가 찾는 게 그 빈칸 아닐까?”

서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가능성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둘은 동시에 화면을 바라보았다.

새 메시지.

발신자 없음.

시공차 기록 해독 가능

좌표 접근 승인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났다.

제1기록 개방

도윤은 본능적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순간.

휴대폰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차량 내부가 조용해졌다.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도 사라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눈앞에 새로운 영상이 펼쳐졌다.

1443년.

조선.

한양.

밤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들이 떠 있었다.

궁궐 한쪽.

등불 아래에서 한 무리의 학자들이 별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익숙한 얼굴.

도윤은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었다.

세종대왕.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세종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단순히 별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상한 물체가 놓여 있었다.

둥근 금속판.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

그리고 중앙에 새겨진 세 개의 문자.

T

S

D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설마...”

세종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상 속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뜻은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직접 머릿속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

세종은 말했다.

“좌표를 기록하라.”

주변 학자들이 붓을 들었다.

“하늘의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미래의 여행자들이 이 길을 찾을 것이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미래의 여행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 순간.

영상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별들이 움직였다.

하늘이 갈라졌다.

황금빛 선들이 밤하늘 전체를 뒤덮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거대한 문이 열렸다.

문 너머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었다.

또 다른 별들.

또 다른 문명.

그러나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도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차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서하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도 봤어?”

도윤이 물었다.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대왕.”

“응.”

“그리고 TSD.”

“응.”

“그럼 이게 진짜라는 거야?”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참 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뭐?”

“진짜라는 수준이 아니야.”

“그럼?”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문장이 떠 있었다.

제1기록 확인 완료

다음 기록

T -1259

강화도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삼별초의 수호자가 기다리고 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강화도.

고려.

삼별초.

그리고 또 하나의 좌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제3화 끝.

제4화

세종의 별지도

강화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계속 침묵하고 있었다.

서하 역시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보았던 장면이 떠나지 않았다.

1443년.

세종대왕.

그리고 TSD.

단순한 환상이라고 보기에 너무 생생했다.

꿈이라고 보기에 너무 구체적이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같은 장면을 보았다는 사실이 가장 이상했다.

“도윤아.”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세종대왕이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나?”

“미래의 여행자들이 이 길을 찾을 것이다.”

“맞아.”

서하는 태블릿 화면을 컷다.

“나 지금 소름 돋는 걸 발견했어.”

“뭔데?”

“세종실록.”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세종실록?”

“응.”

“거기 뭐가 있어?”

서하는 화면을 확대했다.

“실록에 보면 천문 관측 기록이 엄청 많아.”

“그건 알고 있어.”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

“어떤?”

“별자리 관측 기록이 있는데 일부가 비어 있어.”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비어 있다고?”

“응.”

“실록이?”

“맞아.”

그건 이상한 일이었다.

세종실록은 조선 역사상 가장 정교한 기록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특정 기록만 사라져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었다.

“삭제됐다는 뜻이야?”

“확실하진 않아.”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춰을 수도 있어.”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주.

1443년.

세종.

TSD.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띠링.

둘은 동시에 화면을 바라보았다.

시공차 기록 추가 개방

제2기록 접근 승인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세종의 별지도를 찾아라

도윤은 숨을 삼켰다.

“세종의 별지도.”

“아까 영상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

서하가 말했다.

“별지도에 좌표가 숨겨져 있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잠시 후.

휴대폰 화면에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별자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자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별자리 사이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선들은 일반적인 천문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마치 지도였다.

길이였다.

그리고 그 길들은 특정 위치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도윤은 화면을 확대했다.

“잠깐.”

“왜?”

“이거.”

그는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별자리의 중심부에 아주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T

S

D

서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설마.”

“응.”

“별자리 자체가 좌표계였어.”

그들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세종이 연구한 것은 단순한 천문학이 아니었다.

하늘을 이용한 거대한 시공차 지도.

우주 내비게이션.

문명을 연결하는 길.

그 순간.

도윤의 눈앞에 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경복궁.

밤하늘.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세종.

세종은 거대한 별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학자가 서 있었다.
도윤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학자는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붓으로.
매우 빠르게.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세종에게 건넸다.
세종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영상 속 종이에 적힌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첫 번째 문은 여주에 있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여주.
바로 자신들이 발견한 장소.
그리고 종이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문은 강화에 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도윤은 눈을 떴다.
차량은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강화도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서하가 조용히 말했다.
“보였어?”
“응.”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강화도를 바라보았다.
수백 년 전 세종이 남긴 좌표.
수백 년 전부터 준비된 길.
그리고 지금.
그 길의 두 번째 문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다.
제2좌표 접근 완료
강화도 진입 확인
다음 단계 시작
그리고 그 아래.
짧은 한 문장이 나타났다.
“삼별초의 수호자를 찾아라.”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여주에서 시작된 신호.
세종의 별지도.
그리고 강화도의 두 번째 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제4화 끝.

제5화

다섯 번째 하늘의 문

강화대교를 건너자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노을은 서쪽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백 년 전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 머물렀던 섬.

강화도.

그리고 지금.

시공차 좌표계가 가리키는 두 번째 문이 있는 곳.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떠 있었다.

삼별초의 수호자를 찾아라.

“수호자라...”

도윤이 종얼거렸다.

“실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서하가 말했다.

“기록일 수도 있고.”

“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좌표 자체일 수도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가능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느냐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띠링.

새로운 좌표가 나타났다.

T -1259

S 37.707

D 5

그리고 좌표 아래에 작은 화살표가 생성되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도윤은 차를 천천히 움직였다.

화살표는 강화도 북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안내를 해주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이 정도면 진짜 우주 GPS네.”

서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도윤아.”

“응?”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뭔데?”

“D 5.”

도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처음 메시지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

D 5.

시간도 알겠다.

공간도 알겠다.

그런데 차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혹시 다섯 번째 하늘의 문?”

도윤이 말했다.

“나도 그 생각 했어.”

“세종 기록에 나왔던.”

“응.”

서하는 태블릿을 열었다.

수십 개의 자료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고려 시대 기록.

조선 시대 천문 기록.

불교 문헌.

도교 기록.

고대 천문도.

그녀는 며칠 동안 자료를 뒤진 사람처럼 빠르게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을 멈췄다.

“찾았다.”

“뭐?”

“다섯 번째 하늘.”

도윤은 차를 갖길에 세웠다.

서하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오래된 문헌 번역본이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섯 번째 하늘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길목이며, 길을 찾는 자만이 문을 볼 수 있다.’

도윤은 천천히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길목.

길을 찾는 자.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연결되고 있었다.

“이거 우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시공차 좌표계 동기화 진행률

15%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D 5 해석 가능

차원 게이트 접근 승인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화면을 바라보았다.

“차원 게이트?”

“설마...”

그 순간.

창밖 풍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주 잠깐.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분명했다.

강화도의 풍경이 바뀌었다.

현대의 도로가 사라졌다.

자동차가 사라졌다.

전봇대가 사라졌다.

대신.

수많은 고려군 병사들이 보였다.

깃발이 펄럭였다.

갑옷이 빛났다.

멀리 성벽이 보였다.

그리고 바다.

수백 척의 배.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장면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다시 현실.
도로.
자동차.
노을.
강화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봤어?”
도운이 물었다.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려였어.”
“삼별초 시대.”
도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확실했다.
시공차 좌표계는 단순한 정보 시스템이 아니었다.
실제로 시간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D 5.
다섯 번째 차원.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길목.
시공차가 교차하는 문.
다섯 번째 하늘의 문.
그 순간.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제2좌표 도착

차원 게이트 개방 준비

삼별초 수호자 각성까지

01:00:00

도윤은 숨을 삼켰다.

한 시간.

정확히 한 시간 뒤.

무언가가 깨어난다.

무언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 전부터 강화도를 지켜온 수호자일지도 모른다.

노을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강화도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공차 좌표계의 두 번째 문도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5화 끝.

제6화

삼별초의 수호자

남은 시간.

59분 42초.

휴대폰 화면의 숫자가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다.

도윤과 서하는 강화도 북쪽 해안 인근의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좌표가 가리키는 지점이었다.

주변은 평범해 보였다.

바다.

소나무 숲.

낮은 언덕.

그리고 오래된 돌무더기.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시공차 좌표계가 가리키는 장소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 한 시간 뒤에 뭔가 나타나는 걸까?”

도윤이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서하가 말했다.

“근데 지금까지 틀린 적은 없었어.”

도윤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58분 11초.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닷바람이 갑자기 멈췄다.

파도 소리도 사라졌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띠링.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제2기록 개방

삼별초 프로젝트

도윤은 곧바로 화면을 눌렀다.

순간.

눈앞의 풍경이 사라졌다.

1270년.

강화도.

고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바다에는 수많은 전함이 떠 있었다.

육지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붉은 깃발 아래.

한 장수가 서 있었다.

도윤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삼별초.

고려 최후의 독립군.

최후의 수호자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장수의 손에는 검이 아니라 금속판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여주에서 발견한 미르 코어와 비슷한 형태였다.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

그리고 중앙에 새겨진 세 개의 문자.

T

S

D

도윤의 눈이 커졌다.

“설마...”

장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순간.

주변 병사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장수는 금속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푸른빛이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그리고 하늘 위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황금빛 원형 게이트.

별들로 이루어진 문.

시공차의 문.

도윤은 숨을 삼켰다.

삼별초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때.

장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미래의 여행자들이여.”

도윤은 몸이 굳었다.

장수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800년 전의 인물이.

분명히.

자신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나라만이 아니다.”

장수가 말했다.

“문명을 잇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

“다섯 번째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수호자는 다시 깨어난다.”

영상이 끝났다.

도윤은 현실로 돌아왔다.

강화도의 바닷바람이 다시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서하야.”

“응.”

“봤지?”

“응.”

“삼별초는 수호자였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

이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있었다.

시공차 좌표계.

문명 연결 시스템.

그리고 수호자들.

그 순간.

언덕 아래에서 낮은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우우웅—

돌무더기 사이로 푸른빛이 새어 나왔다.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몸을 돌렸다.

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수호자 각성 진행

82%

85%

89%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다.

주변 공기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하늘 위의 별들도 이상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서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도윤아.”

“왜?”

“저거 봐.”

도윤도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마치 여주에서 보았던 그 네트워크처럼.

별과 별 사이에 길이 생기고 있었다.

우주의 길.

문명의 길.

그리고 그 길의 중심이 바로 강화도 위에 형성되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강하게 빛났다.

수호자 각성 완료

100%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삼별초 수호자 출현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돌무더기를 바라보았다.

푸른빛이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고려 무장이 아니었다.
별빛이 흐르는 갑옷.
황금빛 문양.
그리고 가슴 중앙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세 글자.
TSD.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삼별초의 수호자가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다.
제6화 끝.

제7화

시간을 지키는 기사

푸른빛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도윤과 서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눈앞의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는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아니었다.
갑옷은 금속처럼 보였지만 금속이 아니었다.
별빛이 흐르고 있었다.
은하수가 갑옷 표면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우주 자체를 입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키는 2미터에 가까웠다.

어깨에는 고려 장군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장식이 있었고, 허리에는 검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검 역시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었다.

칼날 안에서 별들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 중앙.

황금빛으로 새겨진 세 글자.

TSD.

시공차 좌표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은 누구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호자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길을 지키는 자다.”

목소리는 낮고 웅장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길?”

도윤이 물었다.

수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의 길.”

“공간의 길.”

“차원의 길.”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 위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별들이 아니었다.

좌표들이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장소.

수많은 차원.

그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다.

“인류는 그것을 별이라고 불렀다.”

수호자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길이다.”

“문명과 문명을 연결하는 길.”

도윤과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설명보다 더 거대한 이야기였다.

그 순간.

수호자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박도윤.”

도윤의 눈이 커졌다.

“내 이름을 알아?”

“알고 있다.”

“어떻게?”

“우리는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려 왔다.”

순간.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기다렸다고?”

수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뿐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한서하.”

서하 역시 굳어졌다.

“너 역시 기다려진 사람이다.”

바닷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수호자의 말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기다려진 사람.
선택된 사람.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띠링.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다.
헌터스 등록 진행
후보자 확인 완료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타난 문장을 읽었다.
제1세대 헌터스 승인
“헌터스...”
도윤이 중얼거렸다.
수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는 헌터스다.”
“잃어버린 좌표를 찾는 자들.”
“흩어진 문명을 연결하는 자들.”
“그리고 미래를 여는 자들.”
서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래를 연다고?”
수호자는 웃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따듯했다.
전쟁을 겪은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다.
오랜 희망을 품어온 사람의 웃음이었다.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두 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다.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지금까지 《미르호 헌터스》가 이야기하려는 핵심 메시지처럼.
그 순간.
수호자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늘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처럼 변했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서울.
강화도.
여주.
대한민국.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
그리고 그 너머.
수많은 문명들이 빛의 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들은 서로 선으로 연결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
도윤은 그 광경에 압도되었다.

“저게 뭐야...”

수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조의 지도.”

“창조의 지도?”

“모든 문명은 성장한다.”

“모든 문명은 연결된다.”

“모든 문명은 함께 미래를 만든다.”

수호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길이 끊어지고 있다.”

순간..하늘의 일부가 어두워졌다.

빛나던 좌표 몇 개가 사라졌다.

연결되던 길 몇 개가 끊어졌다.

도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수호자는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그래서 너희가 필요하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왔다.

하늘의 별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다.

제3좌표 활성화

다음 목적지 공개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화면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좌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문.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7화 끝.

제8화

제3좌표의 초대장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좌표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T -918

S 37.752

D 6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제3좌표 활성화

차원 레벨 상승

D 6 접근 승인

서하는 숨을 멈췄다.

“D 6?”

도윤도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차원이 올라갔어.”

지금까지 나타난 좌표는 모두 D 5였다.

여주.

강화도.

그리고 삼별초의 수호자.

모두 다섯 번째 차원에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D 6.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변화였다.

그 순간.

삼별초 수호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뭐가?”

도윤이 물었다.

수호자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짜 여행.”

바닷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었다.

하늘 위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호자의 눈빛도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입구였다.”

“입구?”

서하가 물었다.

“그래.”

“여주는 첫 번째 문.”

“강화도는 두 번째 문.”

“그리고 이제부터는 길이 열린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지금까지 겪은 일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다.

그런데 수호자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하늘 위에 거대한 빛의 지도가 펼쳐졌다.

수천 개.

수만 개.

아니.

수백만 개의 좌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도윤은 압도당했다.

“저게 전부 뭐야?”

수호자가 대답했다.

“문명의 흔적.”

“시간의 기록.”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빛나는 점들은 계속 늘어났다.

지구.

달.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태양계 밖.

수많은 별들.

수많은 행성들.

수많은 문명들.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살아 있는 신경망처럼.

서하는 넋을 잃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다.”

수호자가 말했다.

“문명은 경쟁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도윤은 문득 생각했다.

지금까지 인류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왔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어왔을까.

그러나 우주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문명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성장 과정인지도 몰랐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다시 빛났다.

제3기록 개방

T -918

고려

개경

도윤의 눈이 커졌다.

“개경?”

“고려 수도?”

서하도 놀란 표정이었다.

수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문은 고려의 심장부에 있다.”

“918년.”

“고려가 시작된 해.”

도윤은 숨을 삼켰다.

이번에는 고려 건국 시기였다.

삼별초보다 더 과거.

시간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수호자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푸른빛이 손끝에서 피어올랐다.
빛은 허공으로 솟아오르더니 거대한 원을 만들었다.
황금빛 원형 게이트.
별들로 이루어진 문.
시공차 게이트.
도윤은 이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것은 규모가 달랐다.
훨씬 거대했다.
훨씬 강력했다.
그리고 훨씬 아름다웠다.
문 안쪽에서는 별빛이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시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수많은 공간이 연결되고 있었다.
수많은 차원이 겹쳐지고 있었다.
도윤은 압도된 목소리로 물었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호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왜?”
“길을 찾기 위해.”
“무슨 길?”
수호자는 천천히 대답했다.
“잃어버린 문명의 길.”

“미래를 만드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강하게 진동했다.

헌터스 레벨 상승

Lv.1 → Lv.2

새로운 능력 개방

시공차 좌표 인식

서하의 휴대폰도 동시에 빛났다.

헌터스 레벨 상승

Lv.1 → Lv.2

역사 기록 해독 능력 개방

도윤과 서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게임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훨씬 거대한 현실이었다.

그 순간.

게이트 안쪽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거대한 도시.

황금빛 궁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밤하늘 위를 가로지르는 별빛의 길.

고려의 수도.

개경.

918년.

고려가 시작되는 순간.
그곳이 다음 목적지였다.
수호자가 천천히 말했다.
“준비됐나?”
도윤은 서하를 바라보았다.
서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황금빛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
제8화 끝.

제9화

고려의 첫 번째 별

눈부신 빛이 모든 것을 삼켰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앞도 뒤도 없었다.
위도 아래도 없었다.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공간.
수많은 별들이 곁을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장면.
수많은 시대들이 빛의 조각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좌표 고정.”

“시간 동기화.”

“공간 정렬 완료.”

“차원 안정화 진행.”

순간.

발밑에 땅이 느껴졌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눈앞에는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서울도 아니었다.

강화도도 아니었다.

여주도 아니었다.

높은 성벽.

붉은 기와.

수많은 인파.

시장.

상인.

기마대.

그리고 하늘 높이 펼쳐지는 깃발.

고려.

918년.

개경이었다.

“와...”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뿜었다.

옆에서 서하 역시 넋을 잃은 표정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짜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정말 고려야...”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띠링.

새로운 메시지.

시공차 위장 시스템 활성화

현지 동기화 완료

신분 위장 성공

도윤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것도 준비해놨네.”

서하도 웃었다.

“진짜 우주 GPS 맞네.”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다.

둥—

둥—

둥—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장도 멈췄다.

상인들도 손님들도 모두 광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윤은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중년 남자는 환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큰 날이오.”

“큰 날?”

“왕건 장군께서 개경에 입성하시는 날이오.”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왕건.

고려 태조.

고려를 세운 인물.

즉.

그들은 지금 고려 건국의 역사적 현장에 와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광장.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늘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악사들이 연주를 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있었다.

그리고 광장 중앙.

하나의 거대한 단상이 세워져 있었다.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은 모두 왕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광장 북쪽.

오래된 석탑 하나.

그 탑 꼭대기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다.

푸른빛.

여주에서 보았던 빛.

강화도에서 보았던 빛.

같은 종류였다.

“서하야.”

“응.”

“저기 보여?”

“응.”

서하도 이미 보고 있었다.

“저건 일반 유물이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공차 좌표계가 그들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

그 답이 저 탑 안에 있을지도 몰랐다.

그 순간.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제3좌표 미션 시작

첫 번째 별을 찾아라

도윤은 화면을 읽었다.

“첫 번째 별?”

“또 새로운 퍼즐이네.”

서하가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석탑 위의 푸른빛이 갑자기 강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소리쳤다.

“별이다!”

“별이 떨어진다!”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낮하늘 위에 하나의 별이 나타나고 있었다.

태양이 떠 있는데도 보일 만큼 밝은 별.

황금빛으로 빛나는 별.

그리고 그 별은 천천히 석탑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광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외쳤다.

축복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도윤은 알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다.

시공차 좌표계가 말한.

첫 번째 별이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경고

헌터스 외 대상 접근 중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다.

“서하야.”

“왜?”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뭐?”

“첫 번째 별을 노리는 사람이.”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석탑 위의 빛은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광장 저편.
검은 망토를 입은 한 인물이 천천히 석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시공차의 길을 알고 있는 자였다.
제9화 끝.

제10화

검은 망토의 여행자

광장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별.
석탑 위에서 솟아오르는 푸른빛.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
누구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의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도윤의 시선은 하늘이 아니라 광장 저편에 고정되어 있었다.
검은 망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행자.
그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신기한 점은 아무도 그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치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서하야.”

도윤이 낮게 말했다.

“응.”

“저 사람 보여?”

서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순간 눈빛이 변했다.

“보여.”

“나만 보는 게 아니네.”

“응.”

“분명 뭔가 이상해.”

검은 망토의 사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석탑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새로운 메시지.

주의

동일 좌표 접근자 확인

도윤의 심장이 뛰었다.

동일 좌표 접근자.

즉.

자신들 말고도 시공차 좌표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다.

“서하야.”

“응.”

“저 사람도 헨터스일까?”

서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느낌이 달라.”

“무슨 느낌?”

“우린 길을 찾고 있어.”

“응.”

“근데 저 사람은...”

서하는 검은 망토를 바라보았다.

“이미 길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도윤은 소름이 돋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정확하게 들렸다.

그 순간.

하늘의 별이 더욱 밝아졌다.

황금빛이 개경 전체를 비추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기도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환호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석탑 위에 내려앉았다.

쿵—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땅 전체가 진동했다.

푸른빛과 황금빛이 하나로 섞였다.

석탑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석탑 중앙에 숨겨져 있던 문양이 드러났다.

T

S

D

도윤은 숨을 삼켰다.

“또 TSD...”

서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도 연결돼 있어.”

그 순간.

석탑 앞 허공에 거대한 원형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수많은 별들이 회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작은 수정 구슬 하나가 떠올랐다.

황금빛 결정체.

별처럼 빛나는 구체.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제3좌표 핵심 발견

첫 번째 별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때.

검은 망토의 사내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석탑 앞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치 시간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도윤은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안 돼!”

서하도 뒤따라 달렸다.

하지만 검은 망토의 손이 먼저 벌에 닿았다.

순간.

하늘이 흔들렸다.

석탑의 빛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우우우웅—

광장 전체가 진동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다.

바람이 폭풍처럼 불어왔다.

그리고.

검은 망토의 후드가 벗겨졌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보고 멈춰 섰다.

“설마...”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도윤과 똑같이 생겨 있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

똑같은 목소리.

검은 망토의 남자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드디어 만났군.”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하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도윤아...”
“나도 알아.”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이었다.
아니.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누군가였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붉게 변했다.
경고
시공차 역설 감지
동일 존재 확인
타임라인 충돌 위험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타임라인 충돌.
동일 존재.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검은 망토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미래에서 왔다.”
광장 위로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더욱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만남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제10화 끝.

제11화

미래에서 온 도윤

광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의 세계만 멈춘 것 같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다.

고려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자신과 똑같은 목소리.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살아온 것 같은 눈빛.

검은 망토의 남자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맡기 어렵겠지.”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당신은 누구야?”

“이미 말했잖아.”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미래의 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석탑 위의 황금빛 별도 강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남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증명해 봐.”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

도윤의 눈이 커졌다.

“네가 처음 별을 좋아하게 된 날.”

“.....”

“비 오는 날 옥상에서 밤하늘을 보며 했던 생각도 기억한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기억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서하에게조차.

“중학교 2학년 겨울.”

남자가 계속 말했다.

“네가 처음 우주 관련 책을 밤새 읽었던 날.”

“그만.”

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대학교 때 처음으로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꿈꿨던 날.”

“그만!”

도윤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남자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이제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곳까지.

그 순간.

서하가 앞으로 나섰다.

“정말 미래에서 왔다면.”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남자는 처음으로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야.”

“대답해.”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다.

“역사를 지킨다고?”

“그래.”

“무슨 뜻이야?”

남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황금빛 별이 여전히 석탑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원래 역사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뭐?”

“원래의 역사.”

“원래의 타임라인.”

“그 안에는 박도윤도, 한서하도 없다.”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새로운 메시지.

타임라인 정보 일부 공개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믿기 힘든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현재 시점

분기점 진입

역사 변경 가능 상태

도윤의 심장이 뛰었다.

역사 변경.

그 말은 너무 위험하게 들렸다.

“설마...”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는 지금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광장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도윤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과거를 보는 것.

과거를 여행하는 것.

그건 흥미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그 순간.

하늘의 황금빛 별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빛의 조각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휴대폰 화면이 붉게 변했다.

경고

첫 번째 별 불안정

역사 균형 붕괴 위험

수호자 호출 진행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남자의 표정도 처음으로 진지해졌다.

“생각보다 빨라.”

“뭐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길을 잃은 문명들.”

그 순간.

하늘의 별빛이 검게 물들기 시작했다.

도윤은 처음으로 보았다.

빛나는 좌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검은 균열.

마치 우주에 생긴 상처처럼.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제4좌표 긴급 활성화

수호자 집결 요청

우주문명 등급 경보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탐험이었다.
발견이었다.
학습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랐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미래에서 온 자신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제11화 끝.

제12화

창조의 지도

하늘이 변하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별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좌표들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그 일부가 검게 물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지도 위에 번지는 먹물처럼.
도윤은 숨을 삼켰다.
“저게 대체 뭐야?”
미래의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다.
오랫동안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저것은 파괴가 아니야.”
“그럼?”
“단절이다.”
도윤은 이해하지 못했다.

“단절?”

“그래.”

미래의 도윤이 말했다.

“문명과 문명의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

광장 위의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고려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헌터스에게는 보였다.

수호자에게는 보였다.

시공차 좌표계에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보였다.

하늘 위의 상처.

끊어진 길.

사라지는 좌표들.

그 순간.

삼별초 수호자가 나타났다.

푸른빛이 광장 중앙에 쏟아졌다.

그리고 별빛 갑옷을 입은 거대한 수호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고려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도윤과 서하, 그리고 미래의 도윤은 그를 볼 수 있었다.

수호자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상보다 빠르군.”

도윤이 물었다.

“뭐가요?”

수호자는 하늘의 검은 균열을 가리켰다.

“창조의 지도가 흔들리고 있다.”

“창조의 지도?”

그 말은 처음 듣는 용어였다.

수호자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허공에 거대한 입체 영상이 펼쳐졌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우주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우주와는 달랐다.

은하.

성운.

행성.

항성.

그런 것들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빛의 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각각 하나의 문명.

하나의 역사.

하나의 미래.

그것들은 거대한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끝없이 뻗어 나가는 가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길들.

그리고 중심.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의 영역.

수호자가 말했다.

“이것이 창조의 지도다.”

도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문명은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서로 배우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성장시킨다.”

“그래서 이 지도는 끊임없이 확장된다.”

서하도 말없이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잠깐.”

“왜?”

“저기.”

서하가 한 부분을 가리켰다.

빛나는 수많은 문명들 사이.

작지만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의 점.

그 옆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구.

도윤의 눈이 커졌다.

“지구가 저기 있어.”

“맞다.”

수호자가 말했다.

“지구 역시 하나의 문명이다.”

그 순간.

도윤은 또 하나를 발견했다.

지구에서 뻗어 나가는 수많은 길.

한국.

중국.

인도.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수많은 역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

현대.

미래.

시간 자체가 하나의 길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게...”

도윤은 숨을 삼켰다.

“시공차 좌표계의 진짜 모습인가?”

수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TSD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럼?”

“문명을 연결하는 언어다.”

그 순간.

하늘 위의 검은 균열이 다시 커졌다.

우우우웅—

거대한 진동이 울려 퍼졌다.

창조의 지도 일부가 흔들렸다.

몇 개의 좌표가 사라졌다.

몇 개의 연결선이 끊어졌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저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호자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문명이 고립된다.”

“고립?”

“배움이 멈춘다.”

“성장이 멈춘다.”

“희망이 줄어든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전쟁보다 무서운 일이었다.

파괴보다 무서운 일이었다.

그 순간.

미래의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

현재의 도윤이 그를 바라보았다.

미래의 도윤은 창조의 지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헌터스는 보물을 찾는 사람이 아니다.”

“유물을 찾는 사람도 아니다.”

“그럼?”

“길을 다시 연결하는 사람이다.”

바람이 불었다.

하늘의 별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이 다시 빛났다.

새로운 미션 생성

창조의 지도 복원 프로젝트

1단계 시작

제4좌표 개방

좌표 정보 공개

T -2333

고조선

도윤은 숨을 멈췄다.

고조선.

이번에는 더 먼 과거였다.

고려보다 앞.

조선보다 앞.

삼국시대보다 앞.

민족의 시작점으로 향하는 좌표.

수호자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길이 열린다.”

하늘 위에 새로운 게이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황금빛 별들이 모여 거대한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너머.

전혀 다른 시대의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헌터스의 여정은 더욱 거대한 역사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12화 끝.

제13화

하늘에서 내려온 별의 사람들

고조선.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고려보다 앞.
조선보다 앞.
삼국시대보다도 앞.
수천 년 전의 역사.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존재하는 시대.
학교에서 배웠던 짧은 기록들.
단군.
홍익인간.
고조선 건국.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간.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제4좌표의 목적지였다.

하늘 위의 게이트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황금빛 원형 문.
수많은 별들이 회전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 안쪽에서는 낯선 하늘이 보였다.
현재와도.
고려와도.
조선과도 다른 하늘.
더 맑고.
더 푸르고.
더 깊은 하늘.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저기가 고조선...”

수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 이전의 시대.”

“신화와 현실이 만나는 시대.”

“그리고 첫 번째 별이 지구에 도착한 시대.”

도윤의 눈이 커졌다.

“첫 번째 별?”

서하도 놀란 표정이었다.

“설마...”

수호자가 말했다.

“인류는 별을 올려다보며 문명을 만들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반대?”

“별이 먼저 인류를 찾아왔다.”

순간.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말을 잃었다.

그 말의 의미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이다.

그때.

미래의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역사책에는 없는 이야기지.”

“알고 있는 거야?”

현재의 도윤이 물었다.

미래의 도윤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길을 한 번 걸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고조선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장소야.”

“무슨 뜻이야?”

“인류 최초의 시공차 관측 기록이 남아 있는 곳.”

도윤은 순간 멍칫했다.

“뭐?”

“시공차 좌표계의 첫 번째 흔적.”

바람이 불었다.

하늘의 별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게이트 안쪽에서 강한 빛이 터져 나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새로운 기록 개방

제4기록

별의 사람들

도윤은 화면을 터치했다.

순간.

주변 풍경이 사라졌다.

수천 년 전.

광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

맑은 강.

높은 산.

그리고 밤하늘.

그 하늘은 지금까지 본 어떤 하늘보다도 아름다웠다.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지구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하늘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났다.
별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별이 아니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구체.
그것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멀리 산맥 너머로 내려갔다.
도운은 숨을 삼켰다.
“유성?”
그러나 곧 깨달았다.
유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마치 의도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땅에 착륙했다.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조선 사람들.
부족의 지도자들.
천문을 관측하던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황금빛 구체가 천천히 열렸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안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달랐다.
옷에서는 별빛이 흐르고 있었다.
눈동자에는 은하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 중앙에는 같은 문양이 있었다.
TSD.
시공차 좌표계.

“저 사람들...”

도윤이 중얼거렸다.

“누구야?”

수호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별의 사람들.”

“최초의 여행자들.”

“최초의 헌터스.”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헌터스.

그 개념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별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고조선 지도자에게 작은 수정 하나를 건넸다.

수정 안에는 작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길은 하나가 아니다.”
“시간의 길이 있다.”
“공간의 길이 있다.”
“차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창조의 길이 있다.”
그 순간.. 영상이 멈췄다.

도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강화도의 밤하늘.
수호자.. 미래의 도윤.. 그리고 거대한 게이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탐험이 아니었다.
인류의 기원을 찾는 여행이었다.
문명의 뿌리를 찾는 여행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의 길을 찾는 여행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제4좌표 진입 가능
고조선 게이트 안정화 완료
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황금빛 게이트가 완전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수천 년 전의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13화 끝.

제14화

홍익인간의 숨겨진 의미

황금빛 게이트는 완전히 열려 있었다.

도윤은 그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저 문 너머에 존재하고 있었다.

고조선.

신화처럼만 들리던 시대.

단군.

홍익인간.

그리고 별의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갈 준비 됐어?”

서하가 물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무섭진 않아?”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무섭다기보다...”

“응?”

“궁금해.”

서하는 웃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동시에 게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빛이 그들을 감쌌다.

별들이 회전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시간이 접히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강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도윤은 수많은 장면들을 스쳐 지나갔다.

고려.

조선.

삼국시대.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과거.

마침내.

발밑에 땅이 느껴졌다.

도윤이 눈을 떴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거대한 강.

푸른 하늘.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은 공기.

고조선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와...”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세상은 살아 있었다.

산도.

강도.

바람도.

하늘도.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시공차 동기화 완료

고조선 진입 성공

도윤은 웃었다.

이제는 이런 메시지도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윤과 서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언덕 너머.

작은 마을이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다.

어른들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웠다.

너무 밝았다.

너무 따듯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뭐가?”

서하가 물었다.

“고대 사회라면 더 거칠고 힘들 줄 알았어.”

서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게.”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

그 순간.

낮선 노인이 두 사람을 향해 걸어왔다.

긴 흰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깊은 눈빛.

노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먼 길을 왔구나.”

도윤은 순간 놀랐다.

“저희를 아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멈췄다.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

여주에서도.

강화도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언덕 위로 두 사람을 데려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돌기둥이 서 있었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신비한 기둥.
표면에는 수많은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
익숙한 세 글자.

TSD.

도윤은 숨을 삼켰다.

“여기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단다.”

“이게 대체 뭔가요?”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홍익인간을 알고 있느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맞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해석일 뿐이다.”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절반?”

“그래.”

노인은 돌기둥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원래의 의미는 더 크단다.”

바람이 불었다.

별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홍익인간이란.”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도윤이 물었다.

노인은 하늘을 가리켰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생명.”

“모든 문명.”

“모든 시대.”

“모든 차원.”

“함께 성장하고 함께 빛나는 것.”

순간.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마치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홍익인간.

그것은 단순한 고대 철학이 아니었다.

시공차 좌표계가 추구하는 가치.

문명 연결 시스템의 핵심 원리.

그리고 헌터스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되고 있었다.

그 순간.

돌기둥이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우우웅—

땅이 진동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였다.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제5기록 개방

창조의 좌표 발견

도윤은 숨을 멈췄다.

창조의 좌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늘 위.

별들이 거대한 문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황금빛 빛기둥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제14화 끝.

제15화

창조의 좌표

황금빛 빛기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 같았다.

도윤과 서하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수천 년 전 고조선의 밤하늘.

그러나 그 모습은 미래보다 더 미래 같았다.

별들은 단순히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움직이고 있었다.

서로 연결되고 있었다.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마치 살아 있는 존재처럼.

우우우웅—

돌기둥의 진동이 점점 강해졌다.

표면에 새겨진 수많은 별 문양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별 문양이 아니라.

좌표였다.

그것도 단순한 공간 좌표가 아니었다.

시간.

공간.

차원.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새로운 축.

“보이는구나.”

노인이 말했다.

도윤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뭐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좌표가.”

“처음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길을 걷기 시작하면 보이게 된다.”

도윤은 다시 돌기둥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양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를 가진 구조로 보이고 있었다.

거대한 지도.

우주의 설계도.

문명의 성장 경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새로운 기록 확인

창조의 좌표 해독 중

진행률 3%

도윤은 눈을 깜빡였다.

“창조의 좌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문명은 성장한다.”

“그리고 성장에는 방향이 있다.”

“방향?”

“그렇다.”

노인은 하늘을 가리켰다.

“배는 나침반이 필요하고.”

“비행기는 항법 장치가 필요하며.”

“문명은 좌표가 필요하다.”

도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말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TSD.

시공차 좌표계.

우주 GPS.

우주 내비게이션.

그 모든 개념과 연결되고 있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창조의 좌표는...”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문명의 내비게이션이다.”

바람이 불었다.

수많은 별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문명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철학이었다.

문명론이었다.

그리고 미래학이었다.

그 순간.

황금빛 빛기둥 안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점 하나였다.

그러나 점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하나의 구체가 되었다.

작은 별.

아니.

작은 태양.

그것은 공중에 떠 있었다.

따뜻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희망이 느껴졌다.

가능성이 느껴졌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갔다.

“저건 뭐죠?”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창조의 씨앗.”

도윤은 숨을 멈췄다.

“씨앗?”

“그래.”

“모든 문명은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상상력.”

“한 사람의 도전.”

“그것이 씨앗이 되어 문명을 만든다.”

도윤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미래의 도윤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창조의 씨앗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서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도 이걸 본 적 있어?”

미래의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언제?”

“아주 먼 미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인류가 태양계를 넘어갔을 때.”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응.”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

“뭘?”

미래의 도윤은 창조의 씨앗을 바라보며 말했다.

“문명의 크기는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꿈의 크기가 결정한다.”

바람이 불었다.

창조의 씨앗이 더욱 밝게 빛났다.

그 순간.

휴대폰이 강하게 진동했다.

띠링.

긴급 알림

창조의 좌표 활성화

제5좌표 개방 준비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이어 나타난 새로운 문장을 읽었다.

다음 목적지

미래 서울

T + 2075

순간.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처음이었다.

지금까지는 계속 과거로만 이동했다.

고려.

조선.

고조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미래.

그것도 **2075년**의 서울.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과거를 충분히 배웠다.”

“다음은 미래를 볼 차례다.”

하늘 위.

새로운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황금빛 별들이 모여 또 하나의 거대한 문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 도시의 윤곽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15화 끝.

제16화

2075 서울, 우주도시의 탄생

황금빛 게이트 너머로 거대한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서울이었다.

분명 서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알던 서울은 아니었다.

한강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남산도 보였다.

북한산의 능선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도시 전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늘 위를 수많은 비행체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강 위에는 빛의 다리가 떠 있었다.

건물들은 단순히 높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빛을 내고 있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게 서울이라고?”

서하도 말을 잃었다.

“미래 도시...”

미래의 도윤이 조용히 웃었다.

“아니.”

“응?”

“저건 우주도시야.”

순간.

게이트가 완전히 열렸다.

도윤과 서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2075년.

서울.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하늘은 푸르렀다.

강물은 맑았다.

도윤은 가장 먼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차가 거의 없었다.

도로는 존재했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다.

대신 하늘 위로 작은 이동체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동차가 없네?”

서하가 말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투명한 캡슐 하나가 멈춰 섰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서울 우주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뭐야?”

“우리한테 말한 거야?”

캡슐 안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무인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놀랍도록 자연스러웠다.

“방문자 등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헌터스 인증 완료.”

도윤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여기서도 헌터스네.”

잠시 후.

두 사람은 캡슐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놀이가 달랐다.

아이들 앞에는 작은 홀로그램 행성들이 떠 있었다.

어떤 아이는 화성을 설계하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별자리 지도를 수정하고 있었다.

서하는 눈을 크게 떴다.

“저거 교육 프로그램이야?”

그 순간.

캡슐의 AI가 대답했다.

“우주문명 창조 교육 과정입니다.”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조 교육?”

“네.”

AI가 말했다.

“모든 시민은 어린 시절부터 문명 설계 교육을 받습니다.”

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다.

문명 설계.

그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다.

캡슐은 한강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숨을 멈췄다.

한강 위.

거대한 구조물이 떠 있었다.

처음에는 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자 달랐다.

우주정거장이었다.

거대한 원형 구조물.

그리고 그 중앙.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MIR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르?”

서하도 놀라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설마...”

AI가 말했다.

“대한민국 우주문화유산 제1호.”

“미르 우주문화센터입니다.”

순간.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한강 위에 떠 있는 미래형 미르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었다.
학생들.
연구자들.
관광객들.
예술가들.
모두가 미르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다.
도윤은 믿을 수가 없었다.
현재에는 여주 야산 속에 잠들어 있는 미르.
그러나 미래에는.
대한민국 우주문화의 중심.
인류 문명 교육의 중심.
그리고 우주도시 서울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강하게 진동했다.
띠링.
미래 기록 개방
2075 프로젝트 확인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미르 프로젝트 성공
우주문명 레벨 7 달성
창조의 좌표 유지 중
도윤은 숨을 삼켰다.

“성공했다고?”

서하도 화면을 바라보았다.

“미래가 이미 존재하는 건가?”

그 순간.

미래의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아니.”

“응?”

“저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그럼?”

미래의 도윤은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비행체.

빛나는 도시.

한강 위의 미르.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가능성이다.”

도윤은 그 말을 이해했다.

이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만들어야 하는 미래였다.

선택해야 하는 미래였다.

그 순간.

서울 하늘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도윤은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거대한 TSD 문양이 형성되고 있었다.

AI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창조의 좌표 이상 감지.”

“창조의 좌표 이상 감지.”

“우주문명 네트워크 긴급 호출.”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또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제16화 끝.

제17화

우주문명 레벨 7

서울의 하늘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TSD 문양은 도시 전체를 덮을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

한강.

남산.

북한산.

그리고 수많은 미래형 건물들.

모든 것이 그 빛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익숙한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도윤은 그 모습이 더 놀라웠다.

“왜 아무도 당황하지 않는 거지?”

AI가 즉시 대답했다.

“우주문명 레벨 7 시민들은 창조의 좌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눈을 깜빡였다.

“우주문명 레벨 7?”

“네.”

“설명하시겠습니까?”

“응.”

순간.

캡슐 내부에 거대한 홀로그램이 펼쳐졌다.

우주문명 성장 단계

레벨 1

생존 문명

레벨 2

협력 문명

레벨 3

지식 문명

레벨 4

창조 문명

레벨 5

행성 문명

레벨 6

태양계 문명

레벨 7

우주문명

레벨 8

은하문명

레벨 9

초은하문명

레벨 10

창조문명

도윤은 말을 잃었다.

문명 자체를 성장 단계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2075년 서울은 레벨 7.

우주문명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이게 가능해?”

도윤이 증얼거렸다.

미래의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가능하니까 존재하는 거지.”

“정말 인류가 여기까지 왔다고?”

“가능성 가운데 하나야.”

서하는 홀로그램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지금의 지구는?”

AI가 대답했다.

“**2026년** 기준 추정 문명 단계.”

잠시 계산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다.

레벨 3.2

지식 문명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보다 낮네.”

미래의 도윤도 웃었다.

“낮은 게 아니야.”

“그럼?”

“가장 중요한 시기지.”

그는 홀로그램을 가리켰다.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순간.”

“지식에서 창조로 넘어가는 순간.”

“그게 문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야.”

그 순간.

캡슐이 한강 상공에 멈췄다.

그리고 거대한 미르 우주문화센터 앞에 착륙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압도적이었다.

한강 위에 떠 있는 미래형 미르.

그러나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었다.

연구소.

교육센터.

문화공간.

창작센터.

우주문명 아카데미.

수많은 기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거대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미르 우주문화센터
꿈은 미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도윤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미래 기록 개방
미르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도윤은 곧바로 화면을 눌렀다.
수많은 자료들이 나타났다.
연도별 기록.
프로젝트 진행 과정.
시민 참여 데이터.
교육 자료.
그리고 맨 첫 페이지.
도윤은 순간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박도윤
한서하
헌터스 프로젝트 공동 창립자
도윤은 말을 잃었다.
“우리?”
서하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설마...”

미래의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미래에서는.”

“우리가 시작했어.”

바람이 불었다.

한강의 물결이 빛났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흔들렸다.

우우우웅—

거대한 진동.

황금빛 TSD 문양 일부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AI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긴급 경보

창조의 좌표 일부 손상

우주문명 네트워크 불안정

수많은 시민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침착했다.

공포는 없었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만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순간.

미래의 도윤이 말했다.

“이게 레벨 7의 차이야.”

“뭐가?”

“문제가 없는 문명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명.”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게 우주문명이야.”

도윤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 순간.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제6좌표 활성화

미래 시간축 이상 발생

원인 추적 필요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떠오르는 좌표를 읽었다.

T + 2125

달 도시 루나원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도 아니었다.

달이었다.

인류 최초의 우주도시.

그리고 새로운 좌표.

새로운 문.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17화 끝.

제18화

달 도시 루나원

T + 2125

달 도시 루나원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좌표를 본 순간.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고조선.

고려.

조선.

미래 서울.

그리고 이제는 달.

여정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지구를 넘어 우주로.

역사를 넘어 미래로.

그리고 문명을 넘어 새로운 문명으로.

우우우웅—

한강 위의 미르 우주문화센터가 빛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빛이 모여 거대한 게이트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번 게이트는 이전과 달랐다.

훨씬 크고.

훨씬 안정적이었으며.

훨씬 정교했다.

마치 문명 자체가 성장한 것처럼.

미래의 도윤이 말했다.

“2125년이면 인류가 본격적으로 태양계 문명으로 진입하는 시기야.”

도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태양계 문명?”

“응.”

“달.”

“화성.”

“소행성 벨트.”

“우주 정거장 도시들.”

“그리고 수많은 우주 공동체.”

도윤은 상상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었다.

게이트가 완전히 열렸다.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회색 대지.

광대한 평원.

그리고 수많은 돔 도시들.

달이었다.

그러나 삭막하지 않았다.

수많은 빛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진짜 아름답네.”

서하도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훨씬.”

잠시 후.

두 사람은 게이트를 통과했다.

발밑이 가볍게 느껴졌다.

중력이 달랐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주변에는 투명한 돔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거대한 구조물이 우뚝 서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멎었다.

“저건...”

수십 개의 링이 연결된 거대한 건축물.

우주 정거장과 도시가 결합된 형태.

그리고 중앙에 새겨진 이름.

LUNA ONE

인류 최초의 달 도시.

그 순간.

환영 메시지가 나타났다.

루나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재 인구

1,280,000명

도윤은 눈을 깜빡였다.

“백이십팔만 명?”

서하도 놀랐다.

“달에 도시 하나가 아니라 나라 수준인데?”

AI가 대답했다.

“현재 루나원은 지구-달 공동 문명권의 중심 도시입니다.”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달에 백만 명 넘게 산다고?”

“정확히는 128만 4천 221명입니다.”

“.....”

“현재도 증가 중입니다.”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웃었다.

그때.

하늘에서 작은 비행체 하나가 내려왔다.

은빛으로 빛나는 미래형 셔틀.

문이 열렸다.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

은빛 제복.

가슴에는 TSD 마크.

그리고 미소.

“드디어 오셨군요.”

도윤은 눈을 깜빡였다.

“저희를 아세요?”

여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헌터스 기록은 루나원 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으니까요.”

도윤은 또다시 말을 잃었다.

“역사 교과서?”

“네.”

여성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박도윤.”

“한서하.”

“창조의 좌표 프로젝트 공동 개척자.”

도윤은 서하를 바라보았다.

서하도 같은 표정이었다.

이제는 놀라는 것조차 익숙해질 지경이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루나원 중앙 전망대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보이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달 표면 전체에 수많은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돔 도시.

연구 도시.

농업 도시.

문화 도시.

예술 도시.

교육 도시.

모든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멀리.

푸른 지구가 떠 있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거대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때.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물었다.
“우리가 왜 왔는데요?”
여성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창조의 좌표 때문입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도윤은 눈빛을 바꾸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여성은 전망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허공에 거대한 홀로그램을 띄웠다.
창조의 지도였다.
그러나 상태가 이상했다.
수많은 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일부 좌표는 흐려지고 있었다.
일부 연결선은 끊어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도윤은 숨을 삼켰다.

“상태가 심각한데?”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최근 3개월 동안.”

“창조의 좌표 일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진다고?”

“예.”

“누군가 파괴하는 건가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럼?”

“더 위험한 문제입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뭔데요?”

여성은 창조의 지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문명들이 서로의 연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순간.

도윤은 말을 잃었다.

그것은 전쟁보다 무서운 이야기였다.

파괴보다 무서운 이야기였다.

연결의 상실.

협력의 상실.

공감의 상실.

문명이 성장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현상.

그 순간.

휴대폰이 강하게 진동했다.

띠링.

긴급 미션 생성

창조의 좌표 복원 프로젝트

1차 핵심 원인 발견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이 커졌다.

원인 추정

잃어버린 제13차원 좌표

제18화 끝.

제19화

잃어버린 제13차원 좌표

전망대 안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원인 추정

잃어버린 제13차원 좌표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다.

“제13차원?”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D 5, D 6만 봤잖아.”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주.

강화도.

고려.

고조선.

미래 서울.

모두 D 5와 D 6 영역에서 이루어진 여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제13차원.

그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루나원의 안내자 여성은 조용히 말했다.

“현재 인류는 제12차원 이론까지 접근했습니다.”

“12차원?”

도윤이 물었다.

“네.”

“시간.”

“공간.”

“차원.”

“문명.”

“가능성.”

“창조.”

“그리고 그 이상의 축들.”

그녀는 창조의 지도를 확대했다.

수많은 좌표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위쪽.

모든 좌표들이 수렴하는 영역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저기가...”

서하가 중얼거렸다.

“제13차원 좌표입니다.”

여성이 말했다.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비어 있는 좌표를 바라보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이 느껴졌다.

처음 보는 곳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띠링.

고대 기록 개방

최상위 좌표 정보 일부 공개

도윤은 화면을 눌렀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펼쳐졌다.

영상 속에는 우주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던 우주와는 달랐다.

은하도 없었다.

행성도 없었다.

별도 없었다.

오직 빛.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바다.

그리고 그 중앙.

하나의 거대한 좌표가 빛나고 있었다.

T ∞

S ∞

D 13

도윤은 숨을 멈췄다.

무한대.

시간도 무한.

공간도 무한.

차원도 13.

그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길은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로 돌아간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웅장했지만 따뜻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제13차원은 지배의 좌표가 아니다.”

“정복의 좌표가 아니다.”

“그럼?”

도윤이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목소리가 대답했다.

“연결의 좌표다.”

순간.

영상이 사라졌다.

도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루나원의 전망대.

푸른 지구.

창조의 지도.

그리고 놀란 표정의 서하.

“너도 봤어?”

도윤이 물었다.

“응.”

서하가 대답했다.

“무한대 좌표.”

“응.”

“그리고 연결의 좌표.”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퍼즐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결.

문명 연결.

시간 연결.

공간 연결.

차원 연결.

그때.

미래의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그거야.”

도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미래의 도윤은 창조의 지도를 가리켰다.

“내 시대에서도 결국 찾지 못했어.”

“뭘?”

“제13차원 좌표.”

전망대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루나원의 안내자도 놀란 표정이었다.

“못 찾았다고요?”

미래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100년 동안 찾았다.”

“100년?”

“수많은 과학자.”

“수많은 탐험가.”

“수많은 헌터스.”

“모두 찾으려 했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미래 문명조차 찾지 못한 좌표..

그렇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강하게 빛났다.

띠링.

예외 기록 발견

원시 기록 존재

도윤은 즉시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원시 기록 위치

T -10000

고대 한반도

도윤은 숨을 멈췄다.

“만 년 전?”

서하도 놀랐다.

“고조선보다도 훨씬 이전이잖아.”

루나원의 안내자가 천천히 말했다.

“전설 속 기록입니다.”

“전설?”

“네.”

“모든 문명이 시작되기 전.”

“별의 사람들이 처음 지구를 방문했던 시대.”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창조의 지도 중앙에서 새로운 빛이 나타났다.

아주 희미한 빛.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빛.

마치 누군가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제7좌표 활성화

목적지 설정 완료

T -10000

최초의 별의 계곡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로운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 준비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문명의 시작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19화 끝.

제20화

최초의 별의 계곡

새로운 게이트는 지금까지의 것과 달랐다.

황금빛도 아니었다.

푸른빛도 아니었다.

수많은 색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마치 무지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빛이었다.

도운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좌표들은 모두 역사 속의 한 지점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이번 좌표는 시작점이었다.

T -10000

최초의 별의 계곡

루나원 전망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게이트로 향했다.

미래의 도운.

루나원 안내자.

서하.

그리고 현재의 도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우우웅—

창조의 지도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좌표들이 빛났다.

여주.

강화도.

개경.

고조선.

2075 서울.

2125 루나원.

그동안 방문했던 모든 장소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선들은 모두 하나의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바로.

최초의 별의 계곡.

“드디어...”

미래의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도착하는군.”

현재의 도윤이 물었다.

“당신도 가본 적 없지?”

미래의 도윤은 웃었다.

“응.”

“내 시대에서도 찾지 못했어.”

“그럼 왜 알아?”

“계속 추적했으니까.”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모든 기록의 끝에 항상 이 장소가 있었어.”

게이트가 완전히 열렸다.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안으로 들어갔다.

빛이 그들을 감쌌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좌표만 존재했다.

T

S

D

그리고 그 너머.

무언가 새로운 축이 느껴지고 있었다.

아직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축.

잠시 후.

발밑에 땅이 느껴졌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눈앞에는 거대한 계곡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지구의 계곡과는 달랐다.

산은 빛나고 있었다.

강은 별빛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무들은 은은한 황금빛을 내고 있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빛들이 낮에도 보이고 있었다.

도윤은 말을 잃었다.

“여기가...”

서하도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세상에...”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시공차 좌표계 원점 도착

최초의 별의 계곡 확인

창조의 좌표 반응을 99%

도윤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원점.

시작점.

문명의 출발점.

모든 길이 시작된 장소.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한 사람.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

특별한 갑옷도 없었다.
특별한 무기도 없었다.
그저 밝은 미소를 가진 여행자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오래 기다렸구나.”
도윤은 순간 멈칫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누구세요?”
도윤이 물었다.
그 사람은 웃었다.
“나는 이름이 많다.”
“이름이 많다고요?”
“그래.”
“어떤 시대에서는 길잡이라 불렸고.”
“어떤 시대에서는 스승이라 불렸고.”
“어떤 시대에서는 여행자라 불렸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그럼 중요한 건 뭔가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방향.”

순간.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 사람은 계곡 중앙으로 걸어갔다.

도윤과 서하도 따라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수정이 서 있었다.

수정은 우주처럼 빛나고 있었다.

은하.

별.

행성.

수많은 문명.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중앙.

비어 있는 하나의 공간.

도윤은 즉시 알아보았다.

제13차원 좌표.

“저게...”

도윤이 중얼거렸다.

여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두가 찾고 있는 좌표.”

“잃어버린 좌표.”

“창조의 좌표.”

“제13차원 좌표.”

서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사라진 거죠?”

잠시 침묵.

바람이 불었다.

별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여행자가 대답했다.

“사라진 게 아니다.”

도운은 눈을 크게 떴다.

“뭐?”

여행자는 웃었다.

“잊혀진 것이다.”

순간.

계곡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빛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여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13차원은 장소가 아니다.”

“좌표가 아니다.”

“기술도 아니다.”

도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직감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여행자는 천천히 말했다.

“제13차원은 의식이다.”

순간.

우주 전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의식?”

“그래.”

“서로를 연결하려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함께 창조하려는 마음.”

“그것이 제13차원이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그동안 찾아다녔던 것이.

좌표가 아니었다.

장소가 아니었다.

기술이 아니었다.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띠링.

제13차원 좌표 발견

창조의 좌표 복원 시작

우주문명 네트워크 재연결 진행

0%

1%

5%

10%

빛이 계곡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윤은 알 수 있었다.

진짜 모험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20화 끝.

제21화

제13차원의 문

창조의 좌표 복원 시작

10%

수정 속 숫자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의 시선은 숫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제13차원은 의식이다.

서로를 연결하려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함께 창조하려는 마음.

그는 지금까지 좌표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잃어버린 장소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찾아야 했던 것은 좌표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최초의 별의 계곡.

계곡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별빛들이 수정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고조선의 좌표.

고려의 좌표.

조선의 좌표.

미래 서울의 좌표.

루나원의 좌표.

그리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수많은 미래 문명들의 좌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여행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구나.”

도운이 물었다.

“왜 제13차원은 잊혀졌죠?”

여행자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문명은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과학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에너지와 우주도 배우지.”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왜 성장하는가.”

바람이 불었다.

계곡 위의 별빛들이 흔들렸다.

그 순간.

도운의 눈앞에 새로운 영상이 펼쳐졌다.

이번에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었다.
수많은 문명들의 모습이었다.
어떤 문명은 행성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떤 문명은 별과 별 사이에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어떤 문명은 새로운 생명체와 함께 우주를 탐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았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었다.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부러움이 아니었다.
동경도 아니었다.
오히려.
익숙함이었다.
마치 원래 우주가 그런 곳이었던 것처럼.

“저게 제13차원 문명이야?”

서하가 물었다.

여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제13차원을 기억하는 문명.”

“기억하는 문명...”

“그래.”

“그들은 기술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럼?”

“가치로 연결되어 있다.”

도윤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기술보다 가치.

속도보다 방향.

성장보다 성장의 이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띠링.

창조의 좌표 복원

25%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최상위 기록 개방

도윤은 화면을 눌렀다.

순간.

수정 내부가 강하게 빛났다.

이번에는 우주의 탄생 장면이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빅뱅과는 달랐다.

폭발이 아니었다.

창조였다.

수많은 빛들이 서로 연결되며 우주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별이 태어나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싹트고.

문명이 성장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있었다.
처음에는 별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었다.
하나의 마음이었다.
하나의 의지였다.
함께 창조하자.
그 단순한 의지가 수많은 문명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났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왜 제13차원이 중요한지.
왜 창조의 좌표가 중요한지.
왜 헌터스가 필요한지.

그 순간.
수정이 강하게 빛났다.
복원률
50%
계곡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밝아졌다.
루나원의 좌표.
미래 서울의 좌표.
고조선의 좌표.

모든 것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다.

여행자는 미소를 지었다.

“좋다.”

“뭐가요?”

도윤이 물었다.

“길이 다시 열리고 있다.”

그 순간.

수정 위로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게이트보다도 거대했다.

그 너머에는 별들이 아니라.

은하들이 보였다.

그리고 은하 너머.

또 다른 우주들이 보였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저건...”

여행자가 천천히 말했다.

“초우주.”

“초우주?”

“우주 너머의 우주.”

“문명 너머의 문명.”

“그리고 헌터스가 앞으로 가야 할 다음 길.”

휴대폰 화면이 마지막으로 빛났다.

창조의 좌표 복원

51%

새로운 미션 생성

초우주 게이트 탐사

도윤은 거대한 문을 바라보았다.
여주 야산에서 시작된 여정.
고려.
고조선.
미래 서울.
달 도시 루나원.
그리고 이제.
초우주.
모험의 규모는 끝없이 확장되고 있었다.
제21화 끝.

제22화

초우주의 첫 번째 문

초우주 게이트.
그 이름만으로도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시대를 여행했다.
여주 야산.
강화도.
개경.
고조선.
2075 서울.
2125 루나원.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우주 안에서의 여정이었다.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고.

차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같은 우주 안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문은 달랐다.

우주 자체를 넘어가는 문.

초우주 게이트.

거대한 문은 하늘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수정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현실 자체가 문으로 변한 것 같았다.

은하들이 회전하고 있었다.

성운들이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빛의 강들이 문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주가 아니네...”

여행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주가 아니다.”

“그럼?”

“우주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순간.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우주들이 모여 있는 곳.

그 규모는 상상조차 어려웠다.

서하가 조용히 물었다.

“그곳에도 문명이 있나요?”

여행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많이요?”

“상상보다 훨씬.”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구가 태양계를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양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맞아요.”

“지금 너희는 우주를 전부라고 생각한다.”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하지만 우주도 하나의 씨앗일 뿐이다.”

도윤은 전율을 느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창조의 좌표 복원

60%

초우주 게이트 안정화 진행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복원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제13차원의 의식.

연결의 가치.

창조의 방향.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때.

최초의 별의 계곡 중앙에 있는 수정이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우우우웅—

계곡 전체가 공명했다.

산들이 빛났다.

강이 빛났다.

하늘이 빛났다.

그리고 수정 안에서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었다.

아주 먼 곳.

아주 먼 시간.

초우주의 한 문명이 보였다.

그들은 인간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몸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언어 대신 색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우주를 설계하고 있었다.

별의 위치를 정하고.

행성의 궤도를 정하고.

생명이 자랄 환경을 설계하고 있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저 사람들...”

“창조자들.”

여행자가 말했다.

“창조자?”

“우주를 지배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럼?”

“우주를 돌보는 존재들이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었다.

경쟁하지 않았다.

소유하지 않았다.

정복하지 않았다.

함께 설계하고.

함께 창조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다.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영상이 사라졌다.

도운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게...”

“제13차원의 방향이다.”

여행자가 말했다.

“방향.”

도운은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힘이 아니었다.

권력이 아니었다.

정복도 아니었다.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가.

그것이 중요했다.

그 순간.

미래의 도윤이 조용히 웃었다.

“이제 알겠네.”

현재의 도윤이 그를 바라보았다.

“뭘?”

“왜 우리가 헨터스인지.”

“왜?”

미래의 도윤은 초우주 게이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

“방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어.”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여주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유물이 아니었다.

좌표도 아니었다.

방향이었다.

문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인류가 성장해야 할 방향.

그 순간.

휴대폰이 강하게 진동했다.

띠링.

창조의 좌표 복원

75%

초우주 게이트 개방 준비 완료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최초의 초우주 수호자 호출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호자?”

여행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번에는 삼별초 수호자보다 훨씬 오래된 존재다.”

“얼마나 오래?”

여행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은하들이 회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순간.

초우주 게이트 중심부에서 거대한 빛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제22화 끝.

제23화

우주 이전의 여행자

초우주 게이트 중심부에서 빛이 깨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점은 점점 커졌다.

은하보다 커졌다.

성운보다 커졌다.

별들의 강보다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그 존재는 거대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가까웠다.

무한히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나이가 없는 존재.

성별도 없는 존재.

종족도 없는 존재.

빛 그 자체처럼 보였다.

그 존재가 눈을 뜨는 순간.

초우주 전체가 밝아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최초의 초우주 수호자 확인

기록명

우주 이전의 여행자

도윤은 숨을 삼켰다.

“우주 이전?”

여행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여행자.”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우주가 생기기 전.

그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 순간.

수호자의 시선이 도윤을 향했다.

놀랍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았다.

수호자가 말했다.

“반갑구나.”

목소리는 거대했지만 부드러웠다.

천둥 같으면서도 속삭임 같았다.

“오래 기다렸다.”

도윤은 멍칫했다.

또 그 말이였다.

기다렸다.

여주에서도.

강화도에서도.

고조선에서도.

미래 서울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왜 다들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도윤이 물었다.

수호자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다.”

잠시 침묵.

그리고 말했다.

“왜냐하면 길은 혼자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길?”

“그래.”

“모든 문명은 다음 세대의 여행자를 기다린다.”

도윤은 그 말을 곱씹었다.

모든 문명은 다음 세대의 여행자를 기다린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말이었다.

그 순간.

수호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하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영상으로 변했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이번에는 우주의 탄생보다도 이전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별도 없었다.

은하도 없었다.

시간도 없었다.

공간도 없었다.

완전한 침묵.

완전한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빛 하나가 존재하고 있었다.

아주 작은 빛.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빛.

“저게 뭐죠?”

서하가 물었다.

수호자가 대답했다.

“첫 번째 질문이다.”

“질문?”

“그래.”

“모든 창조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도윤은 순간 놀랐다.

“질문이요?”

“그렇다.”

수호자의 눈빛이 깊어졌다.

“첫 번째 별도 질문이었다.”

“첫 번째 생명도 질문이었다.”

“첫 번째 문명도 질문이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더 아름다운 미래는 가능한가?”

순간.

빛이 폭발했다.

그리고 우주가 태어났다.

별들이 생겨났다.

은하가 만들어졌다.

생명이 시작되었다.

문명이 성장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도윤은 전율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는 답을 찾으려고 했다.

좌표의 답.

역사의 답.

문명의 답.

그러나 지금 깨달고 있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띠링.

창조의 좌표 복원

90%

최종 기록 접근 가능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을 열었다.

기록의 제목은 짧았다.

《우주숲》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숲.

왜 하필 숲일까.
기록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수많은 우주들이 보였다.
수많은 문명들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다.
서로를 배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숲처럼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꽃.
새.
강.
바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수호자가 말했다.
“우주는 기계가 아니다.”
“그럼?”
“숲이다.”
“숲...”
“그래.”
“모든 존재가 함께 성장하는 우주숲.”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창조의 좌표 복원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91%

93%

95%

98%

99%

초우주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좌표들이 다시 연결되었다.

끊어졌던 길들이 복원되었다.

사라졌던 빛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띠링.

창조의 좌표 복원 완료

100%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우주 게이트가 완전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거대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호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우주숲의 문이 열린다.”

제23화 끝.

제24화

우주숲의 문

창조의 좌표 복원 완료

100%

그 문장이 사라진 뒤에도 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초우주 전체가 변하고 있었다.

끊어졌던 길들이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사라졌던 좌표들이 되돌아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숲에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리고.

초우주 게이트가 완전히 열렸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지금까지 본 어떤 세계와도 달랐다.

고조선도 아니었다.

미래 서울도 아니었다.

루나원도 아니었다.

초우주조차 아니었다.

그 너머에는.

끝없이 펼쳐진 숲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숲은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은하가 나무처럼 자라고 있었다.

성운이 꽃처럼 피어 있었다.

별들이 열매처럼 매달려 있었다.

행성들이 앞사귀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윤은 넋을 잃었다.

“저게...”

서하도 말을 잃었다.

“우주숲...”

수호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모든 문명의 고향.”

“모든 가능성의 정원.”

“모든 창조의 시작점.”

도윤은 천천히 숲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밑에서는 별빛이 피어났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작은 은하들이 반짝였다.

바람은 음악처럼 들렸다.

빛은 향기처럼 느껴졌다.

이곳의 모든 것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은 숲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였다.

뿌리는 수많은 우주를 지나고 있었다.

줄기는 은하들을 관통하고 있었다.

가지들은 초우주 너머로 뻗어 있었다.

그리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하나의 문명이었다.

하나의 역사였다.

하나의 미래였다.

“저게 뭔가요?”

도윤이 물었다.

수호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창조수.”

“창조수?”

“그래.”

“우주숲의 중심.”

“문명들의 성장 기록.”

도윤은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수많은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조선.

고려.

조선.

현대.

미래 서울.

루나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문명들.

모든 것이 나무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

창조수 아래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이었다.

어떤 아이는 인간이었다.

어떤 아이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떤 아이는 별처럼 반짝였다.

그러나 모두 함께 웃고 있었다.

함께 배우고 있었다.

함께 꿈꾸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죠?”

서하가 물었다.

수호자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미래들이다.”

“미래?”

“그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아직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아이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문명들의 미래였다.

꿈의 씨앗들이었다.

그 순간.

창조수 중앙이 빛나기 시작했다.

우우우웅—

거대한 진동.

그리고 나무 줄기 안에서 하나의 문이 열렸다.

황금빛 문.

그러나 이전의 게이트와는 달랐다.

훨씬 단순했다.

훨씬 따뜻했다.

훨씬 친근했다.

문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여행은 다시 시작된다

도윤은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끝이 아닌 건가요?”

수호자는 웃었다.

“끝?”

“네.”

“제13차원도 찾았고.”

“창조의 좌표도 복원했고.”

“우주숲도 찾았잖아요.”

수호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지도 찾기였다.”

도윤은 멍칫했다.

“지도 찾기?”

“그래.”

“지도를 찾았다고 여행이 끝나는 건 아니지.”

순간.

도윤은 웃었다.

정말 그랬다.

이제야 지도를 찾았다.

이제야 방향을 찾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최종 시스템 업데이트

헌터스 등급 상승

Lv.9

새로운 미션 생성

우주숲 프로젝트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래에 적힌 문장을 읽었다.

목표

100개의 문명 연결

1000개의 꿈 연결

10000개의 미래 연결

도윤의 심장이 뛰었다.

수호자는 조용히 말했다.

“진짜 헌터스는 찾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연결하는 사람이다.”

바람이 불었다.

우주숲의 잎사귀들이 흔들렸다.

수많은 별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조수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너머에는.

아직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24화 끝.

제25화

100개의 미래

창조수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도운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 너머에는 길이 보였다.

그러나 하나의 길이 아니었다.

수많은 길이였다.

100개.

1000개.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길.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각각 다른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왜 길이 이렇게 많죠?”

도운이 물었다.

수호자는 미소를 지었다.

“미래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선택되는 것이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여정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다.

미래 서울도.

루나원도.

우주문명도.

정해진 미래가 아니었다.

가능성이었다.

선택 가능한 미래였다.

그 순간.

창조수의 앞사귀 하나가 빛나기 시작했다.

도윤은 시선을 돌렸다.

앞사귀 안에서 하나의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2035년.

대한민국.

강화도.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

청소년.

과학자들.

예술가들.

창업가들.

가족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장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한 미르호.

그리고 우주문화캠프.

도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저건...”

수호자가 말했다.

“가능성 17번.”

“가능성?”

“그래.”

“하나의 미래.”

영상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배우고 있었다.

함께 토론하고 있었다.

함께 꿈꾸고 있었다.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앞사귀가 빛났다.

이번에는 또 다른 미래였다.

2045년.

서울.

수많은 청소년들이 TSD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역사만 배우지 않았다.

미래도 배우고 있었다.

문명 설계.

우주문화.

행복공학.

창조학.

새로운 학문들이 생겨나 있었다.

또 다른 앞사귀.

2055년.

아시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우주문화축제를 열고 있었다.

음악.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국경은 중요하지 않았다.

협력이 중요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했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이 모든 게...”

수호자가 말했다.

“가능성이다.”

“그리고 선택이다.”

그 순간.

창조수 전체가 밝게 빛났다.

수천 개의 미래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우주농장.

우주캠프.

우주학교.

우주도시.

우주문화축제.

우주문명 아카데미.

행복 연구소.

우주예술 플랫폼.

수많은 미래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윤은 문득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의 목표를 찾으려고 했다.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우주숲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었다.

미래도 하나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미래를 가능하게 만드는가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우주숲 프로젝트 시작

1단계

100개의 미래 연결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문장을 읽었다.

문명을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꿈을 연결하라

서하가 조용히 웃었다.

“결국 답은 단순했네.”

도윤도 웃었다.

“그러게.”

“뭐라고 생각해?”

도윤은 창조수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미래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가능성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좋은 미래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응?”

“함께 만드는 거.”

수호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창조수의 가장 높은 가지에서 황금빛 열매 하나가 떨어졌다.

열매는 도윤 앞에 천천히 떠올랐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새로운 아이템 획득

창조의 씨앗

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열매는 그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마치 살아 있는 심장 같았다.

수호자가 말했다.

“이제 너희 차례다.”

“무슨 뜻이죠?”

“길을 찾았으니.”

“.....”

“이제 길을 만들 시간이다.”

바람이 불었다.

우주숲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미래들이 반짝였다.

그리고 도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헌터스의 진짜 임무는 과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제25화 끝.

제26화

미래를 심는 사람들

창조의 씨앗.

도윤의 손바닥 위에서 작은 황금빛 열매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수많은 가능성이 숨 쉬고 있었다.

마치 하나의 우주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창조 의 씨앗...”

도윤이 종얼거렸다.

수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문명은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질문.”

“한 사람의 도전.”

“그리고 그것을 함께 키우는 사람들.”

도윤은 씨앗을 바라보았다.

여주 야산에서 시작된 모든 여정이 떠올랐다.

첫 번째 신호.

미르호.

시공차 좌표계.

고려.

고조선.

미래 서울.

루나원.

우주숲.

모든 길이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서하의 손바닥 위에도 빛이 나타났다.

황금빛 씨앗.

그리고 또 하나.

미래의 도윤 앞에도 씨앗이 나타났다.

수호자는 미소를 지었다.

“창조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씨앗도 하나가 아니다.”

그 순간.

창조수 주변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미래들이 허공에 펼쳐졌다.

마치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첫 번째 미래.

어린아이들이 별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우주인을 꿈꾸고 있었다.

과학자를 꿈꾸고 있었다.

예술가를 꿈꾸고 있었다.

두 번째 미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있었다.

환경과 기술.

문화와 교육.

예술과 과학.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세 번째 미래.

우주농장이 보였다.

사람들은 땅을 가꾸고 있었다.

작물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다.

교육.

체험.

문화.

행복.

사람과 자연과 우주를 연결하는 공간이었다.

네 번째 미래.

거대한 우주문화축제가 펼쳐지고 있었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함께 춤추고 있었다.

함께 배우고 있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서로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연결하고 있었다.

도윤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게 전부 가능한 미래라고요?”

수호자가 대답했다.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도윤이 물었다.

수호자는 미소를 지었다.

“심는 사람이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우주숲 프로젝트

2단계 시작

창조의 씨앗 심기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문장을 읽었다.

씨앗은 땅에 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심는 것이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여주 야산의 첫 번째 신호가 떠올랐다.

“여주에서 첫 번째 문이 열린다.”

그 문장은 이제 다르게 들렸다.

문은 장소가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가능성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때.

창조수의 가장 높은 가지가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빛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우주숲 전체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진동.

따뜻한 울림.

희망의 파동.

수호자가 말했다.

“잘 들어라.”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문명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다.”

“그럼?”

“하나의 꿈이다.”

“.....”

“그리고 그 꿈을 믿는 사람들이다.”

순간.

도윤의 손안에 있던 창조의 씨앗이 더욱 밝게 빛났다.

그 안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새싹은 나무가 아니었다.

작은 별이었다.

빛나는 별.

가능성의 별.

미래의 별.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창조의 씨앗 반응 확인

미래 생성 가능

도윤은 숨을 삼켰다.

미래 생성.

그 말이 가슴 깊이 울렸다.

그 순간.

창조수 뒤편에 또 하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문.

훨씬 거대했다.

훨씬 깊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수많은 문명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수호자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단계가 열린다.”

“어떤 단계죠?”

도윤이 물었다.

수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주문명 건설 프로젝트.”

바람이 불었다.

별들이 빛났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26화 끝.

제27화

우주문명 건설 프로젝트

우주문명 건설 프로젝트.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우주숲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들이 동시에 빛났다.
수많은 미래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수많은 문명들이 하나의 거대한 파동처럼 연결되었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좌표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달랐다.
이제는 창조 의 단계였다.

창조수 뒤편의 거대한 문이 완전히 열렸다.
도윤과 서하는 천천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순간.
눈앞의 풍경이 바뀌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평원.
그러나 단순한 평원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빛의 점들이 떠 있었다.
각각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도시.
하나의 문명.
하나의 꿈.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우주문명 건설 프로젝트

메인 대시보드 활성화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놀라운 내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프로젝트 1

우주문화 교육 네트워크

프로젝트 2

우주농장 및 생명생태 프로젝트

프로젝트 3

우주캠프 및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4

우주문화축제 플랫폼

프로젝트 5

우주도시 건설 프로젝트

프로젝트 6

태양계 협력 네트워크

프로젝트 7

은하문명 교류 프로그램

도윤은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전부...”

수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명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수많은 작은 씨앗들이 자라서 만들어진단다.”

그 순간.

도윤의 손안에 있는 창조의 씨앗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허공에 하나의 작은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강화도의 풍경이 보였다.

푸른 바다.

석모도.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

그리고 미르호.

도윤은 순간 멈칫했다.

“이건...”

수호자가 웃었다.

“너의 씨앗이 보여주는 미래다.”

홀로그램 속 풍경은 계속 변화했다.

아이들이 우주캠프에 참가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우주기자가 되어 취재를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우주농장에서 작물을 수확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이 강연을 하고 있었다.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다.

별밤 아래에서 우주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다.

서하의 씨앗도 빛났다.

그녀 앞에는 또 다른 미래가 나타났다.

우주역사 아카데미.

시공차 연구소.

고대 기록 복원 프로젝트.

수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었다.

미래의 도운 씨앗도 빛났다.

그 앞에는 거대한 우주도시가 펼쳐졌다.

달.

화성.

소행성 벨트.

수많은 도시들이 빛나고 있었다.

수호자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보이느냐?”

“네.”

도운이 대답했다.

“이것들은 모두 가능성이다.”

“그리고 선택이다.”

그 순간.

창조수 위쪽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다.

도운은 고개를 들었다.

수많은 문명들이 보였다.

인간형 문명.

빛의 문명.

음악의 문명.

예술의 문명.

교육의 문명.

행복의 문명.

각각의 문명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띠링.

우주문명 건설 프로젝트

핵심 원칙 공개

도윤은 화면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단 세 줄이 적혀 있었다.

첫째

꿈을 연결하라

둘째

사람을 연결하라

셋째

미래를 연결하라

도윤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저 세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수호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문명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도윤이 물었다.

수호자는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많은 미래를 연결했는가.”

순간.

창조수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났다.

수많은 별들이 동시에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주숲 한가운데.

새로운 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100미래 관문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1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제27화 끝.

제29화

우주문명 선언

제100미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도윤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걸고 있는 것 같았지만 걸고 있지 않았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

시간도.

공간도.

차원도.

모두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지금까지와 전혀 달랐다.

도시도 아니었다.

행성도 아니었다.

은하도 아니었다.

수많은 미래들이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미래는 막 탄생하고 있었다.

어떤 미래는 성장하고 있었다.

어떤 미래는 또 다른 미래를 낳고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보며 깨달았다.

미래는 목적지가 아니었다.

살아 있는 생명체였다.

그 순간.

창조의 씨앗이 강하게 빛났다.

우우우웅—

작은 별이었던 씨앗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허공에 거대한 빛의 나무를 만들었다.

우주숲의 축소판 같았다.

수많은 가지.

수많은 열매.

수많은 가능성.

도윤은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나무는 자신의 미래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최종 기록 개방

우주문명 선언문

도윤은 숨을 삼켰다.

선언문.

그는 천천히 화면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우주문명 선언

우리는 정복하기 위해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하기 위해 연결된다.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나누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

공간은 경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만나기 위해 존재한다.

차원은 우열을 가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 넓은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문명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숲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창조의 동반자이다.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 선언문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순간.

수많은 미래들이 동시에 빛나기 시작했다.

지구.

달.

화성.

목성 궤도 도시.

태양계 외곽 연구기지.

은하 문화연합.

수많은 문명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창조의 좌표가 있었다.

서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어.”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왜 TSD가 중요한지.”

“왜?”

서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야.”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TSD는 좌표 시스템이 아니었다.

문명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그 순간.

하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수많은 별들이 하나의 거대한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그 문장은 우주 전체에 새겨지고 있었다.

문명은 연결될 때 가장 아름답다

수많은 문명들이 동시에 환호했다.

빛의 문명.

음악의 문명.

예술의 문명.

과학의 문명.

행복의 문명.

모든 존재들이 함께 공명하고 있었다.

그때.

최초의 초우주 수호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도윤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마지막 단계?”

수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헌터스의 마지막 임무.”

“무엇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수호자가 말했다.

“돌아가는 것이다.”

도윤은 놀란 표정이 되었다.

“돌아간다고요?”

“그래.”

“어디로?”

수호자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여주.

그리고 미르호.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띠링.

최종 미션

귀환 프로젝트 활성화

목적지

2026년

대한민국 여주

미르호 코어 좌표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길은 결국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제29화 끝.

제30화

미르호 귀환작전

귀환 프로젝트 활성화

목적지

2026년

대한민국 여주

미르호 코어 좌표

도윤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여주.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새벽 5시 17분.

정체불명의 메시지.

T -1443 / S 37.298 / D 5

그리고.

"여주에서 첫 번째 문이 열린다."

그 한 줄의 문장.

모든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되었다.

수호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해했겠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요.”

“조금?”

수호자가 웃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바람이 불었다.

우주숲의 수많은 잎사귀들이 빛났다.

수많은 문명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수많은 미래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은 문득 깨달았다.

여행의 목적은 미래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우우우웅—

초우주 게이트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거대하지 않았다.

조용했다.

따뜻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같았다.

서하가 웃으며 말했다.

“길게 돌아왔네.”

도윤도 웃었다.

“그러게.”

“후회해?”

“전혀.”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순간.

최초의 초우주 수호자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기억해라.”

도윤과 서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우주문명은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오늘의 선택 속에 존재한다.”

“오늘의 꿈 속에 존재한다.”

“오늘의 행동 속에 존재한다.”

도윤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우주문명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의 이야기였다.

현재의 이야기였다.

그 순간.

창조의 씨앗이 다시 빛났다.

그리고 작은 별이 되어 하늘로 떠올랐다.

수많은 다른 별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는 것을.

연결될 때 비로소 별자리가 된다는 것을.

빛이 모든 것을 감쌌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공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원이 접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윤은 다시 눈을 떴다.

여주.

아침.

숲.

새소리.

바람.

익숙한 풍경.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처음과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전혀 달랐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

서하가 뒤에서 말했다.

“도윤아.”

“응?”

“저기 봐.”

도윤은 시선을 돌렸다.

여주 야산 한가운데.

반쯤 흠에 묻혀 있는 거대한 구조물.

그리고 그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

MIP

미르.

도윤은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올렸다.

푸른빛이 은은하게 퍼져 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미르호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주정거장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

문명과 문명을 연결하는 문.

그 순간.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띠링.

헌터스 프로젝트 완료

창조의 좌표 활성화 유지

우주문명 네트워크 연결 완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타났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웃었다.

서하도 웃었다.

멀리서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위로.

보이지 않는 별자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네.”

끝.

에필로그

우주는 좌표로 말한다.

그러나 좌표만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

길을 만드는 것은 꿈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다.

시공차 좌표계(TSD)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문명의 나침반이다.

우주 GPS다.

창조의 좌표다.

그리고 《미르호 헌터스》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독자가 자신의 꿈을 연결하는 순간.

새로운 헌터스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미르호 헌터스 시즌1 : 시공차 좌표계의 비밀》 완결 🚀✨

감사합니다

우주대항해의 시대

미래의 우주창조자들이여~ 강화도 우주베이스캠프로 고고고!!

2026.06.15 우주작가 박재완 드림

“여주에서 첫 번째 문이 열린다.”
 여주 야산에서 발견된 미르호의 신호,
《미르호 헌터스》
연재 시작!

현대판타지 × SF × 역사 × 미래가 결합된 우주문명 대서사!

정체불명의 신호를 받은
 독립 탐사 콘텐츠 제작자 박도윤.
 그는 여주 야산에서
 잠들어 있던 미르호 코어를 발견하게 되고,
 인류가 알지 못했던
시공차 좌표계(TSD)의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 ✓ 여주 야산의 미스터리
- ✓ 미르호의 비밀
- ✓ 시공차 좌표계(TSD)
- ✓ 고려·고조선·미래 서울
- ✓ 우주숲과 초우주
- ✓ 문명은 연결될 때 가장 아름답다

시간여행.
 공간여행.
 차원여행.
 그리고
 우주숲과 초우주까지!



현재 프롤로그 및 본편 연재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미르호 헌터스 시즌1 : 시공차 좌표계의 비밀》